

2030 '패닉바잉' 늘었지만...예비 신혼부부 53% "전세 선호"

다방, 예비 신혼부부 2743명 설문조사

주택가격 4억원 미만이 88.8% 차지해

안정된 삶 위한 조건 '출퇴근 시간' 1위

부동산 시장에서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포 매수)이 증가했지만, 예비 신혼부부 10명 중 5명은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3년 내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 274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24일 주거 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9%(1450명)가 신혼주택의 거래 형태로 전세를 선택했다.

전세를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의 가격은 '4억원 미만'이 88.8%(1285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가격 구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억원 미만이 47.3%(684명), 2억원 미만이 41.5%(601명)로

나타났다.

이들이 전세로 신집살림을 계획하는 이유로는 자금 부족이 63.6%(1130명)로 가장 컸다. 이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청약 계획은 21.9%(390명)였다. 반면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는 7.5%(134명)로 나타났다.

매매를 원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34.9%(956명)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주택의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85.1%(81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빌라 9.6%(91명), 오피스텔 2.7%(26명), 전원주택 2.2%(21명) 순이었다.

매매할 주택의 지역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44.0%(421명)로 가장 많았다. 전경부지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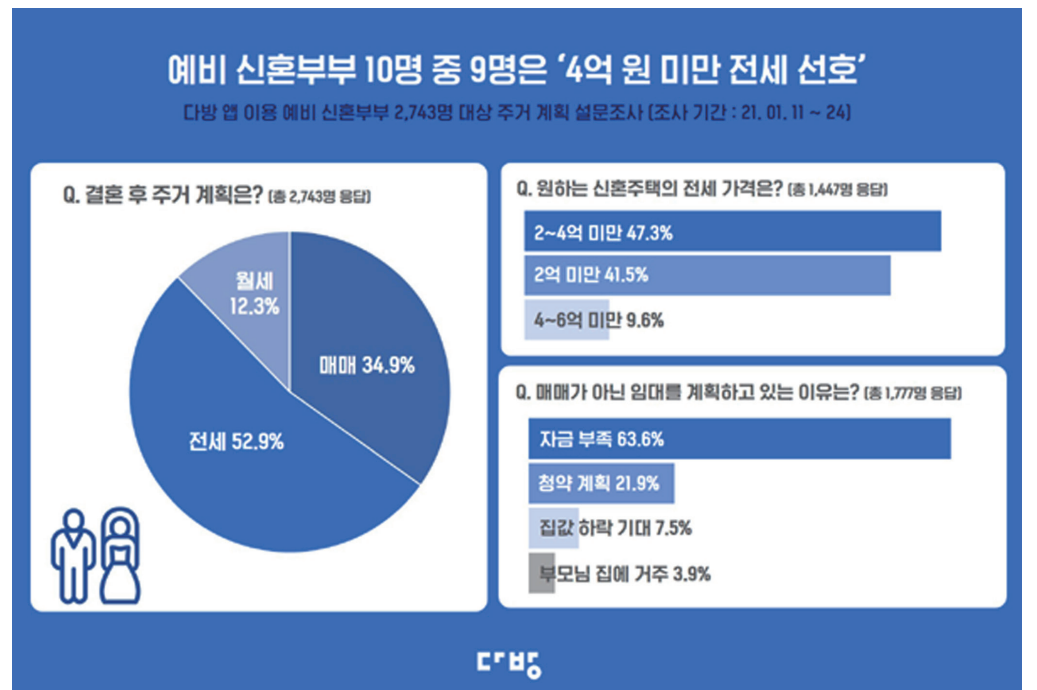
지속되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서울 22.4%(214명), 부산·울산 등 동남권 11.5%(110명), 대구·경북 등 대경권 8.3%(79명), 대전·세종 등 충청권 7.2%(69명)였다.

매매 주택의 가격으로는 3~5억 원 미만이 41.4%(395명)로 가장 많았고 3억원 미만 26.3%(251명), 5~7억원 미만 19.4%(185명), 7~9억원 미만 6.6%(63명), 9억원 이상 6.2%(59명)가 뒤를 이었다.

주택 매매 자금 마련 방식으로는 은행 등의 대출이 61.2%(584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출 예상 금액으로는 1~2억원 미만 41.2%(394명), 2~3억원 미만 24.3%(232명), 1억원 미만 17.1%(163명), 3억원 이상 11.5%(110명) 순이었다.

한편 예비 신혼부부들의 54.0%(1476명)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다주택자 세금 강화 28.1%(768명), 주택 대출 규제 강화 10.9%(299명), 기준 금리 인상 3.9%(108명) 등



이었다. 안정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요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꼽은 예비 신혼부부가 42.1%(1153명)에 달했고, 투룸 이상의 주거 공

간 26.7%(732명), 교육시설 16.3%(445명), 안전시설 7.7%(212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김민정기자

작년 벤처투자, 역대 최대 4.3조 벤처펀드도 첫 6조원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보다 투자규모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다시 갱신되고, 벤처펀드 결성실적도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 30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역대 최대치이던 2019년 4조 2777억원보다 268억원(0.6%) 늘어난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첫째(2조 1503억원)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투자 건수(4231건)와 피투자기업 수(2130개사)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간 투자건수는 4000건을, 피투자기업수는 2000개사를 처음으로 넘었다.

작년 분기별 투자실적은 상저하고 흐름을 보였다. 작년 2분기 투자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34억원, 27.4% 감소했지만, 3분기 들어 1127억원, 10% 증가하며 반등했다. 투자 회복세는 4분기에도 이어졌다. 4분기에만 1조 4120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졌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33억원, 21.9% 증가한 것이다. 하반기 투자 증가 폭(3660억원)이 상반기 감소 폭(3392억원)을 웃돌았다.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 소재·부품·장비(전기·기계·장비, 화학·소재, ICT제조) 등 6개 부문이 투자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바이오·의료 업종은 4분기 들어 투자가 크게 늘며 1~3분기(누적 실적 감소)흐름을 바꿨다. 바이오·의료 업종 투자는 지난해 전체 벤처투자에서 가장 큰 폭(937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유통·서비스, 영상·공연·음반 업종은 전년 대비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서비스 부문이 7242억원으로 전년(8145억원)보다 903억

원, 11.1% 감소했다. 또 영상·공연·음반은 2902억원으로 전년(3703억원)보다 801억원(21.6%)줄었다.

코로나19는 투자 지형도 바꿨다. 비대면 분야로 몰리면서 지난해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는 1조 9982억원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증가율은 5.1%로, 전체 벤처투자 증가율 0.6%보다 4.5%포인트(p) 가량 높았다. 피투자기업도 전년보다 370개사 증가한 1072개사에 달했고, 비대면 분야 투자 비중도 전년(44.5%)보다 1.9%p 증가한 46.4%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업력 7년 이하 초·중기 기업들은 투자가 감소한 반면 7년 초과 후기 기업 투자(1358억원, 12.1%)는 늘어났다. 이는 벤처캐피탈이 창업단계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후속투자나 스케일업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소프트뱅크벤처스, 스톤브릿지벤처스, 아이엠엔비스트먼트 등 투자 상위 VC 10개사의 총 투자 규모는 1조 2793억 원으로 전체 벤처투자의 29.7%에 달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업종도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36.5%), 바이오·의료(30.0%)로 파악됐다.

100억 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들도 총 75개사로 확인됐다. 전년보다 5개 더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기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지난 2016년 20개에 그쳤으나, 2017년 29개, 2018년 54개, 2019년 70개, 2020년 75개 등 매년 증가했다. 중기부는 매년 스케일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유나기자

중소, 설 상여금 못주거나 줄인다

"코로나로 자금사정 곤란"

중소기업 38%는 올해 설에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지난해 50%였지만 올해는 36%로 줄었다. 액수도 평균 62만원에서 48만원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22일 8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4곳(38.5%)은 설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판매·매출부진(89.7%) ▲원부자재 가격 상승(36.0%) ▲인건비 상승(18.4%) ▲판매대금 회수 지연(14.8%) 등 순이다.

자금사정 곤란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96.1%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금년 설에 평균 2억1493만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답했다. 필요한 설 자금 중 부족한 자금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5.0%) ▲결제연기(42.1%) ▲금융기관 차입(40.0%) 등을 계획중이다. 대책 없음도 10.7%를 차지했다.

올해 설 상여금(현금) '지급예정'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지난해 50.1% 대비 13.4%p 감소한 36.7%였다.

정액 지급시 1인당 평균 48만2000원으로 작년 설(62만4000원) 대비 14만2000원 감소했다. 정률 지급시 기본급의 60.1%를 지급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시장서 대형·RV 차종 수요 증가...고급화·차별화 마케팅 펼쳐야"

승용 수요의 약 10.9%가 세단에서 RV로 이전

지난 5년 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소형 자동차 수요가 줄고 대형·RV 수요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7일 발표한 2015년~2020년 국내 승용차 시장의 차급별 수요변화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SUV 등 RV 판매가 크게 늘어 승용 수요의 약 10.9%가 세단에서 RV로 이전되는 등 차종별 수요가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단 판매비중은 2015년 58.6%에서 2020년 47.7%로 축소된 반면 RV 차종은 41.4%에서 52.3%로 크게 확대됐다.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 해외 시장에서도 RV 비중이 늘고, 세단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분석된다.

미국 시장의 세단 비중은 2015년 43.2%에서 2020년 23.5%, RV 비중은 2015년 56.8%에서 2020년 76.5%로 변했다. EU 시장에서도 2015년~2020년 사이 세단 비중은 66.7%에서 54.5%로 줄었고, RV 비중은 33.3%에서 45.5%로 늘었다.

국내 시장의 세단 경·소형 비중은 2015년 28.8%에서 2020년 15.7%로 13.1%포인트 하락했다. 중형 세단 비중은 2015년 15.8%에서 2020년 12.3%로 3.5%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형은 2015년 14%에서 2020년 19.8%로 비중이 늘었다.

협회는 경·소형 세단의 판매비중 감소는 선호도 변화에 따른 수요위축 뿐 아니라 경·소형차의 차량 가격이 우리 기업의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산까지 위축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중형은 RV 차종 및 대형·고급 세단 인기 증가에 따른 수요 이전으로 비중이 줄었고, 대형은 그랜저의 인기 지속·제네시스 등 고급 브랜드 출시 본격화 및 차종 확대 등으로 비중이 늘었다.

SUV 등 RV 차량은 도심형·다목적형 소형 SUV의 급성장세, 여유로운 공간과 편의성을 갖춘 대형 SUV 수요 증가 및 쉐타페·쏘렌토 등 중형 SUV 인기 지속으로 2015년 41.4%에서 2020년 52.3%로 10.9%포인트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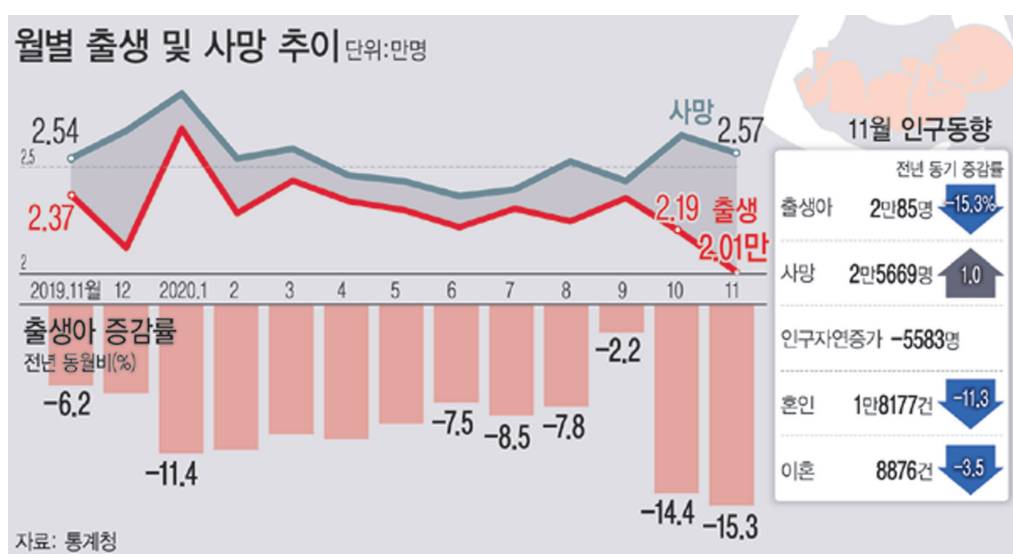
소형 SUV는 2015년 티볼리를 시작으로 스톨리, 셀토스, 니로, 코나, 트레블레이저, XM3 등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면서 인기 차급으로 부상했다. 대형 SUV는 팰리세이드 등 신규 차종 및 GV80 등 고급 브랜드가 출시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최근 소비자 수요 추세가 대형화, 친환경화, 개성화·전환되고 있어 앞으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시장변화에 따라 고급·차별화로 가야 한다"며 "경·소형차의 경우에도 우리 기업의 높은 인건비 수준을 감안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11월 출생아 2만명도 간당간당...11월 인구 자연감소 최대폭

1~11월 누계 출생아 25.4만명...연간 28만명 밑돌듯

인구 자연 감소 13개월째 지속... "감소 추세 가팔라"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겨우 턱 걸이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찍은 것은 물론, 조만간 월간 출생아 수가 1만명대로 추락할 것이라 기시감이 더 짙어졌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한 달 동안 5500명 넘는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등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2만85명으로 전년(2만3727명)보다 3642명(15.3%)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하지마 이를 차지하더라도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출생아

수로는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2016년 4월 이후 동월 기준 55개월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전년보다 0.9명 줄어 4.8명에 불과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 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줄고 첫째 아이 출산 연령도 높아지면서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구 자연 감소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

3787명으로 전년(28만1448명)보다 9.8%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2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30만명대(35만7771명)로 주저앉은 뒤 불과 4년 만에 20만명대 진입이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더욱이 이 같은 감소세가 지속되면 12월 출생아 수가 1만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대에 무너지는 것은 물론 28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과장은 "계절적 요인으로 하반기에는 출생아 수가 적다"며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 내년 출생아 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2만5412명)보다 1.0% 증가한 2만56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가장 많았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조사망률은 6.1명이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5583명이다. 2019년 11월부터 13개월 연속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 1~11월 누적 기준 인구 자연 감소는 2만4399명에 달해 첫 연간 자연감소가 현실이 된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미루면서 11월 혼인 건수는 전년(2만488명)보다 11.3% 감소한 1만8177건에 그쳤다.

작년 1~11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1374건으로 전년 동기(21만4214명)보다 10.7%나 줄어 역대 혼인 건수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 건수는 8876건으로 전년(9199건)보다 3.5% 감소했다.

김동채본부